

제 1 교시

국어 영역

출수형

정답

1	⑤	2	⑤	3	⑤	4	①	5	②
6	④	7	③	8	⑤	9	③	10	②
11	②	12	⑤	13	①	14	⑤	15	④
16	②	17	②						

[1~2] 2013.03B 독서법

1. (가)와 (나)의 글쓴이가 공통적으로 중시하고 있는 '독서의 목적'은?

- ① 당대 사회의 지배 이념을 비판하는 것
→ (가)와 (나) 모두 당대 사회의 지배 이념을 비판하지 않는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 ② 휴식을 취하면서 정서적 안정이나 즐거움을 얻는 것
→ (가)와 (나) 모두 휴식을 취하면서 정서적 안정이나 즐거움을 얻는 것에 대해 다루지 않았다.
- ③ 일상생활에 필요한 실용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
→ (가)와 (나) 모두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아닌 독서를 하며 하는 생각으로부터 얻는 앎과 깨달음, 이치에 대해 다루고 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 ④ 직접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삶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
→ (가)와 (나) 모두 간접 경험에 대해서 다루지 않는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 ⑤ 글 속에 담긴 의미를 깨우쳐 세상의 이치에 통하게 되는 것
→ (가)는 독서를 하며 생각과 기록을 하며 얻는 앎과 깨달음을 통해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것을 다루고 있고, (나)는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책의 뜻을 깨닫기 위해 깊게 생각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두 글 모두 글 속에 담긴 의미를 깨우쳐 세상의 이치에 통하게 되는 것을 중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가), (나)를 읽고 '독서'에 대해 메모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독서를 통해 '앎과 깨달음'의 지평을 넓혀 나갈 수 있어야 한다.
→ (가)는 책에 대한 생각과 기록, 해석을 통해 앎과 깨달음이 더욱 자라난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독서를 통해 앎과 깨달음의 지평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고 볼 수 있다.
- ② 독서할 때는 반드시 생각해야 하며, 생각한 것을 기록해 놓아야 한다.
→ (가)에서 독서를 할 때, 생각을 하고, 기록하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적절하다.
- ③ 온 마음을 쏟아 독서에 집중해야 하며,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해서 읽어야 한다.
→ (나)에서 독서를 할 때에는 바른 자세로 집중하여 반복하며, 깊게 읽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적절하다.
- ④ 독서할 때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바로 해야 하며, 깨달은 바가 있으면 실천해야 한다.
→ (나)에서 '단정하게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앉아 공경하는 마음으로 책을' 읽어야 한다고 말하며, '입으로만 읽고 마음속으로 얻지 못하고 몸으로 실행하지 않는다면, 책은 책일 뿐이고 나는 나일 뿐이라고 하며' 실천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 ⑤ 독서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난관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신의 독서 상황에 맞게 읽을 책을 선정해야 한다.
→ (가)와 (나) 모두 책 선정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가 없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3~6] 2018.04 작자미상 '옥주호연'

3.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배경 묘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 변화를 표출하고 있다.
→ 배경 묘사가 잘 드러나지 않고, 인무르이 성격 변화 역시 확인하기 어렵다.
- ② 과장된 상황의 설정을 통해 해학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해당 부분은 전쟁의 다소 긴박한 상황을 서술한 것이다. 즉, 해학적 분위기라고 보기 어렵다.
- ③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인물의 부정적 면모를 비판하고 있다.
→ 편집자적 논평은 해당 부분에서 드러나지 않는다.
- ④ 과거와 현재의 빈번한 교체를 통해 인물의 내력을 소개하고 있다.
→ 시간의 변동은 드러나지 않는다.
- ⑤ 공간의 이동에 따른 인물의 행위를 통해 긴박감을 조성하고 있다.
→ 최완과 명주가 본진으로 돌아와 거짓으로 행복한 소유를 말하고 이후 최완은 원양 복문에 매복하였다가 한양과 싸우는 등의 다소 긴박한 전쟁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4. 윗글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한양'은 원양 복문을 개방하여 복군의 승리에 기여하고 있다.
→ 한양은 최완을 복군으로 착각하여 문을 열었고, 결국 복군은 패하게 되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 ② '유생'은 '삼소저'의 행동을 단속하지 못한 '왕씨'를 책망하고 있다.
→ 유생이 '여자는 그 어미 행사를 본받나니 여아의 행사를 엄하게 단속하는 일이 없음은 이 어쩐 일이뇨? 일후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부부지간이라도 결단코 용서치 아니 하리라.'에서 부인인 왕씨가 무예를 익히는 삼소저를 단속하지 않았다는 점을 책망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③ '왕씨'는 '삼소저'가 자신의 기대를 저버린 것에 대해 한탄하고 있다.
→ '우리 팔자 무상하여 너희 셋을 얻으매 비록 여자나 어진 배필을 얻어 우리 사후를 의탁할까 하였더니'에서 왕씨가 삼소저가 규녀의 행실을 생각지 않아 자신의 기대를 저버린 것에 대해 탄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삼소저'는 천하가 어지러움을 제시하며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
→ '방금 천하 크게 어지러우매 소녀의 득시지추(得時之秋)이어늘 어찌 한갓 여도를 지키어 세월을 허비하리이꼬'에서 삼소저가 천하가 어지러운 것과 관련하여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장임'은 '원견'의 간언에도 불구하고 '명주'와 '최완'을 환대하고 있다.
→ 장임이 의심하지 않고 명주와 최완에게 술을 내와 관대할 때, 원견이 간하여 진위를 살피라고 하였으나, 장임은 명주와 최완을 주육으로 잘 대접하고 있다. 따라서 적절하다.

5.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전통적 유교 사회에서 남성에게 요구된 효는 학문과 무예에 힘써 입신양명에 이르는 것이었으며 여성에게 요구된 효는 규방에서 예절을 익히는 것이었다. 이 작품의 여성 주인공들은 이러한 인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사적 영역에서 공적 영역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욕망을 드러낸다. 이 욕망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여성 주인공들은 남성 영웅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비범한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영웅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다.

- ① 삼소저가 칼 쓰기와 말 달리기를 꾸준히 연마하는 것에서 공적 영역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욕망을 엿볼 수 있군.
→ 칼 쓰기와 말 달리기를 익히고, ‘일을 본받아 공명을 세워 부모께 현양(顯揚)코자’한다는 말을 통해 삼소저가 공적영역에 나아가고자 하는 욕망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삼소저가 장원공주의 업적을 언급하는 것에서 전통적 유교 사회에서 여성에게 요구된 효에 대해 알 수 있군.
→ 장원공주의 업적을 언급하며 ‘일을 본받아 공명을 세워 부모께 현양(顯揚)코자’한다는 삼소저의 말에 왕씨가 어이없어 하며 탄식하는 모습과 보기의 설명 중 여성에게 요구된 효가 규방에서 예절을 익히는 것이라는 설명으로 미루어 보아 이것이 여성에게 요구되는 효가 아님을 알 수 있다.
- ③ 삼소저가 여자의 도에 대해 설명하는 왕씨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 것에서 성별에 따라 다르게 요구된 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규방의 소소한 예절을 지키다가는 부모께 영화를 뵈올 길이 없사온지라’라는 삼소저의 말에서 이들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요구된 효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벽주가 한 번 쓴 화살에 장임이 말에서 떨어진다는 것에서 여성 주인공의 뛰어난 능력이 드러나는군.
→ 벽주가 쓴 활이 장임의 어깨를 맞추며 말에서 떨어진다는 묘사에서 여성 주인공인 벽주의 뛰어난 활솜씨가 드러난다. 따라서 적절하다.
- ⑤ 삼소저가 최완, 최진, 최경과 함께 전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에서 남성 영웅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여성 영웅의 모습이 드러나는군.
→ 남장을 하고 가출한 삼소저가 최완, 최진, 최경과 형제를 맺고 전투를 하는 것으로 보아 이들이 모두 동등한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6. ㉠와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에는 대화 상대방을 기만하려는 의도가, ㉡에는 대화 상대방을 기피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 ② ㉠에는 대화 상대방을 비하하려는 의도가, ㉡에는 대화 상대방을 칭송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 ③ ㉠에는 대화 상대방을 설득하려는 의도가, ㉡에는 대화 상대방을 비판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 ④ ㉠에는 대화 상대방과 진실로 협력하려는 의도가, ㉡에는 대화 상대방을 전략적으로 속이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 ⑤ ㉠에는 대화 상대방에게서 동정심을 이끌어 내려는 의도가, ㉡에는 대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해설]

㉠은 명주가 최완에게 원양성을 빼기 위해 협력을 구하는 말을 하고 있고, ㉡에서는 명주와 최완이 원양성을 빼기 위해 장임을 속이고, 거짓으로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즉, ㉠은 진실로 상대방과 협력하려는 것이고, ㉡는 전략적으로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이다.

[7~10] 2007.10 사회

7.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유무역협정의 개념을 서술하고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 1문단에서 자유무역협정의 개념을 서술하며 글을 시작하고 있다. 따라서 적절하다.
- ② 협정 체결의 이해득실에 대해 언급하여 협정의 영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4문단에서 자유무역협정으로 얻는 이해득실로 제조업 분야의 성장과 농수산 분야의 타격을 언급하고 있다.
- ③ 국내 산업의 장단점 분석을 통해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 국내 산업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 ④ 구체적인 수치를 인용하여 독자의 상황 이해에 도움을 주고 있다.
→ 4문단에서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구체적 수치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적절하다.
- ⑤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며 마무리하고 있다.
→ 5문단에서 농업 분야를 포함하여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큰 타격을 입는 분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서술하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8. 윗글을 읽고 심화 학습을 위해 구상한 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 ㄱ.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세는 앞으로 어떻게 바뀔까?
 ㄴ. 국산 자동차의 대 미국 수출액은 어떻게 변화할까?
 ㄷ. 현재 정부는 미국 외에 어떤 나라와 FTA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가?
 ㄹ. 국내 산업 중 자동차 분야와 농업 분야를 제외한 다른 분야에 한미 FTA가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해설]

- ㄷ. 3문단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을 비롯한 주요 무역 대상국과 FTA를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렇다면 주요 무역 대상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인지 파악하는 것은 심화 학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적절하다.
- ㄹ. 4문단에서 언급하고 있는 산업은 국내 제조업중 자동차 분야, 농업 분야에서 한우, 양돈 농가였다. 그렇다면 다른 산업은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 파악하는 것은 심화산업이 될 수 있다.
- ㄱ. 4문단에서 앞으로 쇠고기 수입 관세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이미 나와있는 정보라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
- ㄴ. 4문단에서 자동차의 대 미국수출액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이미 지문에 나와있는 정보라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

9. <보기>는 인터넷 게시판에 오른 글의 일부이다. <보기>의 글쓴이가 읽글을 읽고 제시할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결국 한미 FTA가 체결되었다. 수출로 먹고 살려니 어쩔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자동차 판 돈으로 식량을 수입하면 되지 않느냐는 말에는 절대로 수긍할 수 없다. 세상 물정 모르는 말이다. 전 세계적으로 식량의 절대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게다가 세계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식량 가격은 계속 상승할 것이다. 자동차 판 돈을 다 쏟아 부어도 충분한 식량을 수입하지 못할 때가 온다. 허름한 옷을 입고 허름한 집에서는 살 수 있지만 먹을 것이 부족하면 살 수 없다. 생존을 위한 최소량의 식량이라도 우리 손으로 직접 생산해야 한다.

- ① 가능한 한 많은 식량을 수입하여 비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보기>의 필자는 식량을 수입할 수 없는 시기가 올 것이라고 전망하며 자체생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적절하지 않다.
- ② 국제 식량 시장의 변동을 예측하여 농산물 수출을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 필자는 농산물 수입이 어려울 때를 대비하여 농산물 자체 생산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관련이 없는 말이다. 적절하지 않다.
- ③ 국내 농축산업 분야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하겠습니다.
→ <보기>의 필자는 국내에서 식량을 자체 생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적절하다.
- ④ 주요 농축산 생산물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유통망을 정비하고 확대해야 하겠습니다.
→ <보기>의 필자는 유통망이 아닌 생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논점에서 어긋난 서술이다.
- ⑤ 제조업 분야에 이익을 재투자해서 절대적인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 <보기>의 필자는 식량 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제조업은 필자가 관심을 두는 사안이 아니다.

10. ㉠의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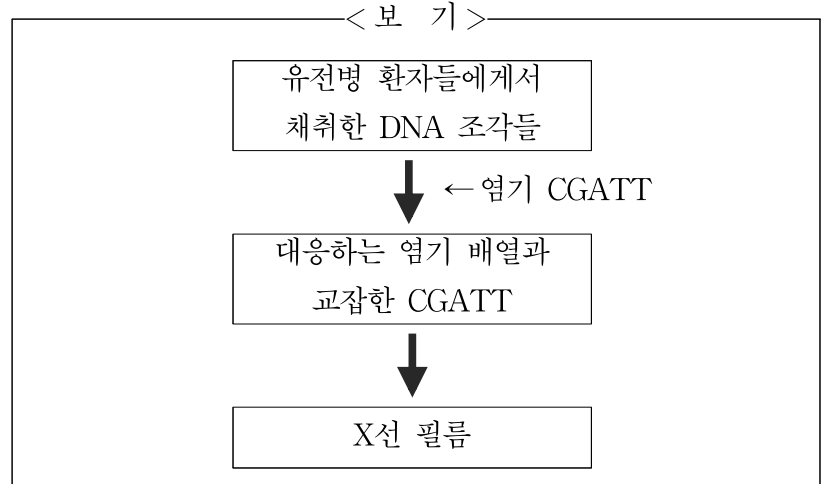
- ① 경쟁을 통해 관련 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
→ 2문단에서 자유무역협정이 경쟁의 심화를 통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적절하다.
- ②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차단하여 경제성장에 도움을 준다.
→ 2문단에서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입이 들어오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 ③ 당사국들의 배타적 호혜 조치로 실질적인 이익을 높여 준다.
→ 2문단에서 자유무역협정은 당사국 간의 배타적 호혜조치로 실질적인 이익을 높여준다고 언급하고 있다.
- ④ WTO 다자협상에 비해 단기간에 합의점을 이끌어내기가 쉽다.
→ 2문단에서 WTO 다자협상은 장기간이 소요되고, 합의점을 이끌어내기 어렵지만, FTA는 협상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고, 실질적 이익을 높여주며 관심사항 반영에 유리하다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⑤ 다른 나라 사이의 협정으로 인한 반사적 피해에 대응할 수 있다.
→ 2문단에서 특정 지역 경제 공동체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가 받는 반사적 피해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적절하다.

[11~14] 2008.10 과학

11. 윗글의 중심 화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유전자의 종류와 기능
→ 2문단에서 유전자의 각 염기에 대해 서술하고 있으나, 그 기능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 ② 유전자 추적의 도구와 방법
→ 이 글은 유전자 치료를 위해 프로브와 겔 전기영동법을 통해 비정상적인 유전자를 찾아내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 ③ 유전자 치료의 의의와 한계
→ 유전자 치료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지문 내에서 한계점을 지적하고 있지는 않다.
- ④ 유전자 치료의 상업적 가치
→ 윗글에서 유전자 치료의 상업적 가치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 ⑤ 유전 질환의 종류와 발병 원인
→ 윗글에서는 유전 질환의 종류와 발병 원인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12. [A]의 내용을 <보기>와 같이 도식화했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염기 CGATT’는 프로브에 해당한다.
→ 3문단에서 프로브라는 DNA조각이 대응하는 염기 배열과 교잡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 ② ‘염기 CGATT’는 GCTAA라는 염기 배열과 교잡한다.
→ 2문단에 따르면 A염기에는 T염기가, C염기에는 G염기가 연결되므로 적절하다.
- ③ ‘X선 필름’ 위에 놓는 이유는 위치를 검색하기 위한 것이다.
→ 5문단에서 교잡이 일어난 후 프로브의 위치를 찾기 위해 X선 필름을 이용한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적절하다.
- ④ 겔 전기영동법으로 ‘유전병 환자들에게서 DNA 조각들을 채취’했을 것이다.
→ 5문단에서 DNA조각을 겔 전기영동법으로 떼어내었다고 언급하였으므로 적절한 추론이다.
- ⑤ ‘유전병 환자들에게서 채취한 DNA 조각들’은 방사성을 띠거나 형광성을 띠고 있다.
→ 5문단의 실험에서 건강한 사람에게서 떼어낸 프로브에 방사성이나 형광성을 띠게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13. ㉠과 바꾸어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색출(索出)할

→ ㉠은 많은 것 중에서 찾아낸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이에 해당하는 어휘는 ‘살살이 뒤져서 찾아내다.’의 의미를 가진 ‘색출’이라고 할 수 있다.

② 반출(搬出)할

→ ‘반출’은 ‘운반하여 내다.’라는 의미이다. 문맥상 어울리지 않는다.

③ 배출(排出)할

→ ‘배출’은 ‘안에서 밖으로 밀어 내보내다.’라는 의미이다. 문맥상 어울리지 않는다.

④ 각출(釀出)할

→ ‘각출’은 ‘각각 내놓다.’라는 의미이다. 문맥상 어울리지 않는다.

⑤ 유출(流出)할

→ ‘유출’은 ‘밖으로 흘러 내보내다.’라는 의미이다. 문맥상 어울리지 않는다.

14. ㉡을 하는 이유를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만약 프로브가 사라진다면, 이 부분은 유전 질환을 일으키는 유전자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② 만약 프로브와 교잡하지 않는 DNA가 발견된다면, 이 부분은 정상적인 유전자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③ 만약 프로브와 교잡하는 DNA가 발견된다면, 프로브가 유전 질환을 일으키는 부분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④ 만약 프로브와 교잡하는 DNA가 발견된다면, 이 부분이 유전 질환을 일으키는 부분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⑤ 만약 프로브와 교잡하지 않는 DNA가 발견된다면, 이 부분이 유전 질환을 일으키는 부분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해설]

염기는 각각 맞는 염기에 결합하는 성이 있다. 프로브는 건강한 사람의 것이므로 건강하다면 해당 염기에 교잡할 것이고, 유전자에 이상이 있다면 교잡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특성을 활용하기 위해 교잡실험을 진행하는 것이다.

2014.10 정훈 '탄궁가'

15.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대구의 방식으로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 '동편 이웃에 따비 얻고 서편 이웃에 호미 얻고', '나라 빛과 이자는 무엇으로 장만하며 부역과 세금은 어찌하여 차려낼꼬'와 같은 부분에서 대구가 다수 등장하며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② 색채 대비를 통해 화자의 긍지를 나타내고 있다.
 → 색채의 대비는 확인할 수 없다.
- ③ 여음과 후렴구를 사용하여 운율감을 자아내고 있다.
 → 윗글에서 여음, 후렴구는 확인할 수 없다.
- ④ 대립적 공간을 설정하여 이상 세계를 보여 주고 있다.
 → 윗글은 현실의 공간 내의 상황만을 다루고 있다.
- ⑤ 영탄법을 활용하여 절대자에 대한 귀의를 다짐하고 있다.
 → 윗글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을 뿐, 절대자에 대한 귀의를 다짐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없다.

16.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농사를 준비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 따비는 농기구로 설명하고 있으며, 호미 역시 농기구이다. 즉, 농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 화자가 처한 어려움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 벼를 쥐가 먹었다는 것은 가난해졌음을 의미한다. 즉, 화자가 처한 어려움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다.
- ③ ㉢: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는 화자의 안타까운 심정이 담겨 있다.
 → ㉢은 빛과 이자를 낼 수 없고, 부역과 세금 역시 차릴 여유가 없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는 상황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 ④ ㉣: 자신의 도리를 다할 수 없다는 화자의 탄식을 드러내고 있다.
 → 명절의 제사를 지내는 것과 친척과 손님 접대는 자신의 도리이지만, 이를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화자의 탄식이라고 볼 수 있다.
- ⑤ ㉣: 화자의 궁핍이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음을 나타내고 있다.
 → ㉣에서의 '너'는 궁귀이다. 이 것이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함께하였다는 것은 궁핍이 오래된 것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7. 윗글과 <보기>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즐거움이 있으니 가난해도 오히려 괜찮고
 한가로움이 많으니 병이 있어도 또한 괜찮아라
 향불을 사르다 보니 내리던 봄비 가늘어지고
 시구 찾다 보니 어느새 들려오는 새벽 종소리
 골목이 외져 길은 이끼로 덮였고
 창문이 없어 대나무로 울타리를 삼았네
 명예와 이익을 따르는 저 사람들 우스워라
 세월이 다하도록 바쁘게 달리기만 하네

- 김효일, 「만흥」 -

- ① 윗글과 <보기>의 화자는 모두 계절의 순환을 통해 교훈을 얻고 있군.
 → <보기>는 ‘봄’이라는 계절 이외에는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 ② 윗글과 <보기>의 화자는 모두 불우한 처지에서 자연을 동경하고 있군.
 → 불우한 처지에도 불구하고 자연을 동경하는 것은 <보기>이다. 윗글은 절망적인 상황을 나타낼 뿐 자연을 동경한다고 보기 어렵다.

- ③ 윗글과 <보기>의 화자는 모두 자신의 과거에 대한 회한을 드러내고 있군.
 → <보기>는 자연을 즐기고 있을 뿐, 자신의 과거에 대한 회한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 ④ 윗글의 화자는 <보기>의 화자와 달리 타인의 행동을 직접적으로 비난하고 있군.
 → <보기>의 화자는 ‘명예와 이익을 따르는 저 사람들 우스워라’라며 타인의 행동을 직접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 ⑤ 윗글의 화자는 <보기>의 화자와 달리 다른 대상과 대화하는 형식을 통해 가난에 대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군.
 → 윗글의 화자는 가난에 대해 ‘궁귀’라는 대상과 대화하는 형식을 사용하고 있으나, <보기>의 화자는 혼자 말하고 있을 뿐, 대화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 않다.